

## 조선 초기 혼례 풍속 연구 —家禮輯覽을 중심으로—

조 효 순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 A Study of Wedding Ceremonies during the Early Stage in Chosun Dynasty

Hyo-Soon Cho, Professor  
Majoring in Clothing, Dpt. of Human Ecology, Myung Ji Univ.

目 次	
Abstract	4. 請 期
I. 緒 論	5. 問 名
II. 家禮輯覽의 혼례풍속	6. 親 迎
1. 議 婚	III. 結 論
2. 納 采	參 考 文 獻
3. 納 幣	

### Abstract

Our ancestors had done their best for the moral training and home management, further more for the governing a country through observing the decorums.

The 4 main decorums, i. e. the Coming-of-Age Ceremony, Wedding Ceremony, Funeral Rites and the Ancestor worship Ceremony during the Chosun Dynasty had guided well our ancestors' life harmoniously.

The Wedding Ceremonies of them was one of the most happy events in their lives meaningful of the filial piety and the union of two families.

The Wedding ceremonies consist of the 6 etiquettes, i. e., Eui-Hon (matchmaking), Nab-Chae(present), Nab-Pye( bride's presents to her parents-in-law), Chung-Gi(ask the other part about an auspicious day), Moon-Myung(choice of an auspicious day), Chin-Young(take and meet a bride) in order of sequence.

Chin-Young consists of Cho-Hon, Sa-Dang-Go-Woo, Sung-Bok, Cho-Rye, Boo-Myung-Ji & Mo-Song, Jun-An-Rye, Hab-Geun-Rye, Sin-Bang-Chi-Reu-Gi, Hyun-Goo-Rye, Myo-Hyun and Jae-Haeng ete, considerably complicated programs in order.

## I. 緒 論

우리는 유구한 민족사적 전통성을 자랑하는 국민으로 자주성 있는 예의를 토대로한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해왔다. 특별히 우리민족은 東方禮儀之國이라 일컬을 만큼 禮를 존중해 왔다. 예의를 지킴으로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 하였고 조선시대 冠婚喪祭禮는 선조들의 일생을 원만한 삶으로 이끌어 왔다. 삶의 근간이 된 이러한 예절 중에서도 혼례는 孝의 정신을 나타내며 人倫之大事로 여겨 가장 중요한 경사중의 하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초기에 발간된 중요한 禮書중의 하나였던 金長生의 「家禮輯覽」의 관혼상제례 중에서 혼례를 중심으로 조선초기의 혼례풍속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중기에 발간된 「四禮便覽」중의 혼례풍속과 근대 「家庭儀禮準則」에 나타난 혼례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혼례문화의 변천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민족의 정신사적 예의관을 확립하여 근대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과제를 이룩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家禮輯覽의 혼례풍속

혼례란 婚자를 가례집람에서는 昏字를 쓰는데 이것은 어두운데 의미를 둔다. 혼인이란 황혼이니까 저녁때를 시기로 삼음으로써 혼례라 이름 지은 것이다.<sup>1)</sup> 반드시 어두운 때로써 혼례를 이룬다는 것은 양(신랑)은 가고 음(여자)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취혼이라 한다. 昏姻이란 말에 昏은 신랑을 의미하고 姻은 신부를 뜻하므로 혼인이란 夫妻의 명칭을 말한다.<sup>2)</sup> 아침, 낮, 밤이라도 모두 예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공자가 말하기를 남자 나이 70이더라도 주부가 없어서는 안되며 종자는 종남을 밖에 인술해 가지고 있고, 종부는 종녀를 안에서 통솔해 있는데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고로 비록 나이 70이라도 장가를 가서 자녀를 봐야 한다. 이것은 자식이 없는 것을 이룸이요, 만약 자식이 있고 며느리가 있어 가문을 전계할 만한 즉 장가가지 아니해도 좋다.

혼례시 納幣를 하면 길일을 택일하는데 여자의 부모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위는 아직 자식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보내어 조상하게 하고 만일 사위의 부모가 죽었은즉 신부 집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조상하게 한다. 父喪에는 아버지라 칭하고, 母喪에는 어머니라 칭하고, 父母가 모두 안계실때는 伯父세모라 칭한다. 사위될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였을때 장례가 끝난 다음 신랑의 백부가 신부측에 고하여야 하며 혼례는 이루지 못한다. 신랑이 상을 당하면 신랑은 장가는 오지 아니하고 여자가 시집가는 예식만 올리는 것이 예법이다. 그런데 신부의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신랑도 똑같이 한다. 또한 신부에게 장가드는 날을 두었는데 신부

1) 김장생, 가례집람, 규장각본, p. 1.

2)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p. 16.

가 죽으면 어찌하느냐? 사위(신랑)는 再衰(1년상에 입는 옷)를 입고 가서 조상하고 일단 장례식이 끝나면 상복을 제한다. 신랑이 죽은 경우도 이와 같이 한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신랑의 부모가 갑자기 죽었을 즉 어떻게 하느냐? 신부는 신부복을 벗어 버리고 베로 만든 심의(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른다. 그와 반대로 신부가 도중에 있고 신부의 부모가 돌아가셨을때는 신부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예법이다.<sup>3)</sup>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마중하는데 신부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는데 집안간에 재최(1년상), 대공(9월상)이 있을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신랑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상복으로 갈아 입는다. 신부는 집에 들어가서 상복으로 갈아 입은 후 그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하고 재최, 대공이 끝나면 다시 혼례를 하자 않느냐? 제사를 지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리 있느냐? 다시 혼례를 치를 수 없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참최복(父喪입는 상복 3년복)을 입고 가서 조상하고 장례가 끝나면 벗는다.

길일을 택해놓고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죽어도 똑같이 하고 복색은 참최복을 입는데 요새 와서는 이것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으려 한다.<sup>4)</sup>

여자가 아내가 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 3년상을 입어야 한다. 장례식에 나아가는 예식만 좇아 복을 정한다. 재최, 대공, 소공(5개월), 시마(3개월)는 경한 것이므로 혼례를 그냥 이룬다. 혼례를 이룬 다음 그때 곡한다. 만일 여자의 집에 재최, 대공의 상이 있으면 신부는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 상사가 끝난 후에 다시 혼례를 하지 않는다. 제사에 비해 혼례는 경한 것이다. 중한 것도 때가 지나면 패하므로 경한 것을 기일이 지난 다음 어찌 다시 행할 수 있겠는가, 또한 백호동의 백과사전에는 예법에 혼인은 동성을 취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면 금수와 같다. 그밖에 소공이상 속하는 가까운 혼인은 또한 결혼할 수 없다. 소공이하(먼 손수)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sup>5)</sup>

## 1. 醢 醢

의혼이란 청혼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반드시 20에 끝나고 남자가 장가가는 경우 반드시 30에 끝난다.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차등을 두느냐 하면 여자(음)는 나이 어린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고 남자(양)는 장년이 되더라도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남자는 20살에 성관식을 올리니 그러니까 애비가 되는 실마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자는 15살에 시집 갈 수 있다.<sup>6)</sup>

남녀가 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를 당했다는 것을 말함이라 그 이유는 혈기가 일단 왕성해(남자면 장가갈 나이, 여자면 시집갈 나이)지때 스스로가 자기를 단속하기가 어렵다. 사춘기가 지났으니 어떻게 예를 돌아보겠는가? 그런고로 모두 다 급시자(연령에 달한 사람)는 절개를 온전히 해서 절개를 깨뜨리기 전에 예식을 다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sup>7)</sup>

예법에 사위가 장차 자기 아내를 맞아 오려는데 아버지가 초례를 지내게 하고 아버지가 들

3) 김장생, 전계서, p. 2.

4) 김장생, 전계서, p. 2.

5) 김장생, 전계서, p. 2.

6)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p. 281.

7) 김장생, 전계서, p. 6.

아가셨다. 다만 모친이 생존했을 뿐 방계의 종친으로서는 叔父가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가서 아내를 직접 맞아 올 적에 마땅히 어머니의 명령을 받아야 옳으나? 마땅히 명령을 모친에게서 받아야 한다.

「시경」에 말하길 아내에게 장가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매가 아니면 얻지 못한다. 결혼하는데에는 반드시 중매로 말미암아서 먼저 양쪽을 소개하여서 양쪽이 믿을 만한 연후에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을 예로 여기는 바다.

중매의 매자는 모배라는 매자인데 중매라는 매자를 그렇게 적은 이유는 두성(집안)을 합치게 도모하기 때문이라 한다. 여자집(女氏) 혼인은 황혼때 예를 이루는 고로 혼이라 말한다. 그런데 혼인이라고 할때 媿자를 붙이는 이유는 여자가 남편한테 가지 때문이다. 「예기」 「사혼례주」에 남자의 경우에는 혼이라 하고 여자를 시집보내는 자는 저녁때 남자 집으로 보내서 그들이 만남으로 媿이라 하고 이것을 婚姻이라 적는다.

## 2. 納采

「사혼례」에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과 더불어 혼인을 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중매장으로 하여금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여자측에서 허락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폐백을 가져가는 예를 날자를 정하여 전하게 한다. 납채라는 것은 폐백을 바친다는 것인데 폐백을 받지 않을까봐 두려워 하는 고로 그래서 바친다고 말한다.

納吉이란 남자측에서 길일을 택하여 신부집에 가는데 폐백을 받지 않는다고 할까봐 또 다시 바친다고 하는 것이다. 納徵을 納이라고 말하는 것은 폐백을 바친 즉 혼례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자집에서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徵이란 글자의 해석에는 혼인의 성립이나 증명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sup>8)</sup>

혼례에 여섯가지(六禮)절차가 있는데 높은 집이나 일반의 집이나 여섯가지 절차는 같다. 납채는 사위될 사람이 신부측에 채택되는 바가 되는 고로 예를 바쳐 그 취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sup>9)</sup>

절차를 보면 執事는 삼가 높으신 어른께서 여기 이 사람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중매장의 의견에 따라서 덕의 영애(딸)로서 부인되게 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니 저의 자식 아무개는 이에 옛부터 우리 선배들이 해 온 예식이 있기 때문에 삼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폐백을 바치나이다.

제가 장차 점장이에게 가서 좋은 날을 택하여 좋게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높으신 어른께서 이쪽 생각을 끊어 살피시어 다 응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나이다. 연월일 아무군에 사는 아무개가 삼가 아뢰나이다.

祠堂에 배필을 구하게 뵈다는 사실을 고하는 제사를 올린다.

요새 세상에는 중매장이라는 사람을 쓰고 다른 심부름꾼도 쓰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와 양주와 안주로 과실을 가지고 가서 예찬하고 여러가지 토론을 한다.

손님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의 동쪽에 서서 어찌해서 왔다는 요건을 전달하면 주인은 편지를 받아 가지고 층계를 내려와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을 천거하면 그 자가 나와서 손님

8) 이순홍, 전계서, p. 145.

9) 김장생, 전계서, p. 11.

에게 청하여 기러기를 잡고 성명을 묻고 주인이 손님을 들어가도록 허락하면 기러기를 예식과 같이 전달한다.

신랑집에서 간 사람이 심부름꾼이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유사(有司)로서 예식을 돕는 사람이다. 그리고 손님접대도 하는 사람이다. 유사가 비록 알기는 알지만은 뉘덕이십니까 하고 묻는 것은 거듭 조심함이라.

그런 후 편지와 폐백을 펴 놓는다. 일을 보는 사람이 편지를 놓은 탁자를 대청에 올려 놓고 예물은 대청위에 올리지 않고 뜰 가운데 펼쳐 놓는다. 손님과 주인이 좌석에 앉으면 심부름꾼이 차를 낸다. 차를 마시는 것이 끝나면 손님이 편지를 받아 그때 주인에게 편지를 바친다.<sup>10)</sup>

「復書」에 베풀하는 집사가 삼가 어르신께서 이 사람이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나치게 중매장이의 칭찬하는 말을 믿으시고 제 몇째딸 아무개를 택하여 짝을 지어 주시니 이름 적는 첩식은 아버지는 아무개요, 어머니는 아무개요, 아무 항렬에 몇째딸 갑자년 모월 모일 모시 생이라 사주회답 편지를 내서 예를 올린다.

주인이 사당에 제사 지내고 끝나매 사당에서 나와서 손님들을 접견하고 각기 자기 자리에서 나가면 집사가 가지고온 편지로써 주인에게 바치면 주인이 그 편지를 손님에게 바친다.

執事가 술을 권하는데 혹 세 순배를 혹 다섯 순배를 권하기도 해서 여러가지 안주가 있어 혹 세 번 돌기도 하고 혹 다섯 번 돌기도 해서 보통 세속에서 奉幣할 때와 같이 한다. 손님이 좌석을 사양하고 일어나서 나와서 주인에게 두 번 절을 하면 주인이 답배를 하고 주인이 손님을 전송하여 대문 밖에 나와서 경의를 표하고 주인은 손님이 말을 다 타기까지 경의를 표한다.

### 3. 納幣

「昏儀」에 나라가 納微이라는데 대해서 納微이라는 것은 폐백을 바쳐서 초빙하는 것 신부를 모셔오는 것이다.<sup>11)</sup>

선비를 초빙하는 예법으로써 여자를 초빙한다. 이러므로써 음식이 있고, 천과 같은 선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찾아보는 예법이다.

「丘儀」에 예전의 혼인에는 6례가 있는데 가례에 問名, 納吉, 請期(혼인날)의 3가지 예식은 빼고, 다만 納采(간단항 예물), 納幣, 親迎(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만 써서 간략한 것을 따르게 했다. 지금에는 납채와 問名을 넣어 納吉, 請期 두가지 예식을 폐백에 넣어서 삼례지만 六례의 항목이 다 구비된 것이다.

폐백에는 색이 있는 비단을 쓰는데 열 가지가 넘는다.

「사혼례」에 납징에는 비단 필과 가죽 한쌍, 玄纁(검은천과 붉은천)을 쓴다는 것은 음양이 갖춘 것을 상징함이라 束帛이라는 열단(열 끝을 묶는 것)을 말함이라. 「주례」에 말하길 무릇 딸을 시집보내던가 아내를 맞아 들일적에 폐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데 치백(검은 비단)은 다섯쌍을 지나지 않게 한다.

검은색이라는 것은 부인이 음에 속한다는 것을 말함이라. 여기에는 검은 것과 붉은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고로 음과 양이 다 갖추어진 것을 상징했다고 말함이라.

10) 김장생 전계서, p. 14.

11) 김장생 전계서, p. 19.

「五禮儀」에 폐백은 명주나 베로 쓰는데 二品 이상은 검은 것 셋과 붉은 것 두개로써 다섯 필, 三品 이하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는 검은 것, 붉은 것 각각 하나씩 쓴다. 요즈음은 청홍을 쓴다. 여기에 비단과 가죽을 쓰며 40자 한필로 5필 5개를 한 묶음이라고 이것을 匹偶(부부)를 필과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이다.

예물에는 비녀(釵)가 있는데 실록에 말하길 대나무가지로써 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는다. 銅(구리)과 대모(玳瑁 : 거북집질)로 비녀를 만들어 꽂게 했다.

「윤회」에 銅은 팔찌라. 금팔찌와 반지를 주었다.

「具書」에 보잘 것 없는 아무개 아무군에 사는 姓 아무개는 삼가 존친대 집사 악에 아뢰나이다.

아름다운 명령삼가 받자와 덕의 따님으로써 저의 집 자식 아무개에게 시집보내 주신다는 말씀을 받들고 삼가 사자를 보내어 가서 납폐를 올리는 예식을 행하도록 하나이다.

제 몇째 아들로써 비록 관례는 올렸다 하더라도 아직 장가들지 못했기 때문에 존덕 제 몇째 어린 처녀가 성질이 대단히 훌륭하고 덕이 있는 얼굴 빛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일을 보는 저의 집사람이 있는 것을 인연으로 감히 혼인 청원을 드렸었는데 덕에서 저의 청을 들어 주시리라 기억했겠습니까? 그래서 삼가 좋은 길일을 택하여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약간의 예물을 보내드리는데 그 예물은 별지에 적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폐백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오니 덕이 있는 가문에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을 기뻐하오며 멀리서 덕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대단히 기쁩니다.

제 자식 아무개가 나이 벌써 장성했으나 혼기를 지나 아직도 배필이 없어서 기다리던 차에 삼가 납폐하는 예를 행하옵고 다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라옵나이다. 다 갖추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나이다. (연월일) 회답 편지의 식 보잘 것 없는 어버이 아무 郡에 사는 아무 姓은 삼가 아뢰나이다. 아무 벼슬하는 아무 郡에 사는 존장 덕의 집사에게 아뢰나이다. 삼가 좋은 명령을 받자옵고 생각하옵건대 보잘 것 없는 자식이 평소에 교훈한 것도 별로 없고 하여 덕의 자부노릇을 감당할지 대단히 두렵사오나 점을 친 결과 양가 성혼이 좋다고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사죄하겠나이다.

또 선조부터 내려오는 예식에 따라서 중한 예물을 주시니 이제 사퇴하려 하여도 사퇴할 수가 없어 감히 거듭 절하고 받습니다. 혼기 같은 것은 오직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삼가 덕 어르신께서 여러가지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않겠나이다. (모년 모월 모일에 변변하지 못한 어버이 아무개) 그러면 신랑의 아버지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사당에 가서 아뢴다. 의식절차는 납폐와 같다. 다만 축문을 고쳐 읽어 가로되 아무개아들 아무군 아무 벼슬을 지내는 사람의 딸을 맞아들여서 며느리로 삼기로 정했사옵기 오늘 납폐 예식을 거행하옵고 예식이 끝났사옵나이다. 장차 아무 달 아무 날에 혼례식을 올리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 4. 請 期

「구의」에 보면 청기에 대한 한 구절을 납폐의 구절에 합쳤다. 언제 혼례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sup>12)</sup>

12) 김장생 전계서, p. 24.

## 5. 問 名

問名이란 예식은 신부의 이름을 묻는 것이며 장차 돌아가서 길흉을 점치려고 한 것이다.

문명이란 예식은 길일을 택하는 것인데 돌아가서 사당에 성혼을 하자는 것을 고하는 것이고 사자를 보내어 폐백을 바쳐 혼례를 이루는 것을 납징이라 한다.

問名이란 예식의 주석에 말하길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신부의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것이므로 혼례에 말하길 아무개는 신부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이라 말한 것과 같다. 옛 사람이 납채를 한 후에 납길을 해서 보냈을 때에 만일 점을 쳐 본즉 길하지 못하면 어찌하느냐? 쉬었다가 다시 고쳐서 택해야 한다.

## 6. 親 迎

친영이란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고 迎은 맞이함이라.<sup>13)</sup>

신부가 도착하거나 주인이 나가서 읍하고 맞아들여 서쪽 층계로 주인을 인도함이라. 신랑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거든 신부는 서쪽에 서서 남쪽으로 향한다. 세숫대야를 갖다 바치고 서로 번갈아 다른 뜻을 전달한 후에 조역하는 사람들이 술주전자를 철거하면 도마위에 산 제물을 올려놓고 제기를 진열해서 끝난 후에 도마는 들여간다. 또 대찬을 배푼 후에 신부가 자리를 깔고 마주 앉아 또 조역하는 사람들이 찬이 준비되었다고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초례에 마주 앉아서 둘이 다 같이 앉으면 신랑은 좌석을 앞에 앉고 신부가 신랑의 뒤에 좌석을 펼쳐 놓는 것은 夫唱婦隨의 취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먼저 제사를 편 연후에 밥을 세번 먹기를 끝내고 세번 술을 딸아 입을 적시고 첫번째, 두번째 입을 적실 때에는 술잔을 쓰고, 세번째는 근(醢)이란 술잔을 쓴다. 처음에 입에 술을 덜 적에는 간으로써 하고, 두번째, 세번째 술맛을 볼 적에는 첫번째 맛볼 때처럼 따르지 않는다. 주인이 절을 하고 술잔을 받으면 조역하는 사람들이 문안에서 북쪽을 보고 답배를 하면서 술을 마시면 신부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초례를 끝낸 후에 조역하는 사람들이 술을 딸아 문밖에서 자신들이 술을 마신다.<sup>14)</sup>

驥儻이란 두 집이 서로 물건을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신랑집에서 자리를 배풀고 빈객들에게 야채나 과일을 내는 예식이 있다.

「사혼례」에 처음 어두울 때를 시기로 해서 침문밖에 술 세개를 진열해 동쪽에 놓고 돼지를 발톱을 잘라 버리고 폐와 등골을 들어내어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페는 2개, 생선은 14마리를 사용한다.

생선을 15마리를 하여 거기서 한 마리를 빼서 14마리를 쓰는 것은 그것이 짝수에 맞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 술주경으로 이것을 덮어 짓갈과 장국이 두 제기요, 다른 짓갈이 4제기요, 곡식을 곁해서 4그릇을 넣고 꿇인 것이고 이것이 해장국이다.

대갱암이란 고깃국을 꿇이는 것을 말함이라. 옛날의 국에는 소금과 채소가 들어 있지 않게 하여 불위에 놓아 꿇이게 한 것이다. 술병은 東位의 뒤쪽에 놓는다.

### 1) 初 昏

13) 조효순, 전계서, p. 286.

14) 金鍾鳴, 韓國의 婚俗研究, 大成文化史, pp. 160~161, 1981.

禮는 보통 행사에 반드시 初昏을 이용한다. 用昕使者의 뜻은 신랑댁에서 신부집에 신랑을 보내어 납채하고 문명하고, 납길하고, 청기를 하는 6례 가운데 이 다섯가지는 다 아침을 이용한다. 즉 이것이 밝기 시작이다. 군자는 무슨 일을 행하는데 일찍하는 것을 숭상하는 고로 아침나절을 이용함이라. 저녁을 택하는 것은 신랑측이다. 그것은 신부를 맞아올 때를 이룸이다.<sup>15)</sup>

사위가 盛服을 한다. 「사혼례」에 신랑은 새 모양을 한 복두를 쓰고 붉은 치마를 입고, 검은 무늬를 놓은 옷을 입고, 하인들은 모두 玄端을 입고 목거(검은 수레)를 타는데 뒤따르는 수레는 두 대다. 신랑이 신부의 주인이 된다. 유관자는 공복을 입고 문무양반의 자손과 과거급제자는 사모를 쓰고 각대를 한다. 서인은 갓을 쓴다.

## 2) 廟堂告于

「구의」에 축문을 읽어서 다 끝나면 주인이 절을 하고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랑은 양 계단 사이에 서서 네번 절한 다음 제자리로 돌아오고 神에게 하직을 고평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절을 하고 축문을 불사르면 예식이 끝난다.

신부가 문안에 들어와 곧 조상의 사당에 참배를 한 연후에 혼례를 이루나니 사당에 고한 후에 혼례를 행했다는 것을 증거를 삼는다. 女家에서도 사당에 고한다.

## 3) 盛 服

신부는 머리에 장식 비녀를 하고 純衣를 입고, 순의에는 붉은 천을 두르고 방 가운데에서 남쪽을 향해 선다.

신부는 衿衣를 입는다. 붉은 색으로 옷에 선을 둘러서 음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무릇 부인이 언제나 선을 두른 옷(衿衣)을 혼례복으로 입는 것은 혼례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 이런 복식을 하는 것이다. 「疏」에 부인은 음인데 여자의 음기가 위로 올라가서 남자가 교섭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sup>16)</sup>

姆는 땡기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감싸고, 비녀를 꽂고, 齊衣를 입고, 신부의 왼쪽에 있다.<sup>17)</sup> 姆는 혼례때 조역하는 사람인데 부인으로 나이 50쯤 되어 가지고, 자식이 없어 집을 나와 다시 시집을 가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이지만 능히 부도를 남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혼례때 조역을 한다. 요새 乳母와 비슷하다.

姆의 옷도 齊衣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姆가 신부의 우측에 있으면서 마땅히 신부의 예절로서 고평한다. 조역하는 여자가 말을 신부 우측에서 고평하는 것은 地道(여자의 도리), 天道(남자의 도리)는 우측을 존중히 여기는 취지라. 유모나 나이 많은 女子나 중 한사람을 택하여 姆를 삼는다. 초례 날에 신부가 盛飾할 때 무가 옆에서 도와 준다. 보통은 방 밖에서 있고, 또 시년을 한사람 더 붙여 조역을 삼는다.

## 4) 醴 禮

“술로써 초례를 올린다” 「사혼례」에 아버지가 신부에게 단술을 팔아주고 마중오는 사람을

15) 김장생 전계서, p. 31.

16) 박경자, 혼례복에 대한 연구, 성신여대는문집, 朴廷養, 「거가잡목고」 二卷, 內服篇.

17) 조효순, 박순규의 복식편, 한국복식 7호.



기다리면 어머니는 방 밖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 있다. 신부가 머리에 장식을 하고선 純衣 또는 衿衣를 입고, 아버지가 방 가운데서 단 술을 딸아 주면서 남쪽을 향하여 선다. 신부가 동쪽에서 잔을 올리고 자리에 서서 신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신랑이 오면 아버지가 나가서 빈자로 하여금 뿔치리를 시키고 어머니는 나가서 방밖에서 남면해서 있고 직접 사위에게 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요. 마땅히 딸에게 주의를 시킨다. 신부가 잔을 받아 입술만 약간 적신다.

### 5) 父命之와 母送

부명지는 아버지가 신부에게 여러가지 주의할 일에 대한 말을 주는 것이고 母送은 어머니가 딸을 보내는 예이다.

### 6) 奠雁禮

신랑이 두번 절하고 기러기를 바친다. 「사혼례」에 손님이 올라가서 기러기를 바치고 절을 하되 주인은 答拜를 하지 않는다. 主人이 신부에게 기러기를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 「疏」에 상고해 보니 納采 等 예식에는 모두 손님이 절을 하면 答拜를 하지만 여기에 答拜를 하지 않는 것은 主人이 신부에게 기러기를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

“無則刻木爲之”(만일 산 것이 없으면 나무로 깎아서 쓰기도 한다) 「昏禮」를 상고해 보니 선물은 죽은 꿩을 사용하지 않는 고로 기러기를 사용, 없으면 검은 거위로 대용하기도 한다. 기러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러기가 음양(추위와 더위)을 따라 왕래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음양에 따라 오고 간다” 「士昏禮註」에 기러기가 나뭇잎이 떨어지거든 남쪽으로 날아가고 얼음이 얼면 북쪽으로 날아간다. 신랑은 양이 되고 신부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러기를 쓴다는 것은 부인이 남편을 따른다는 뜻을 취해서 쓴 것이다.

「昏禮」에 폐백에는 죽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고로 꿩을 제쳐놓고 기러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신부가 나가서 車에 오른다” 신부가 타는 車에도 신랑의 車와 같은 것은 차는 다 같아서 士의 아낙네들이 타는 車로써 남편집에서 공급하는 것이라. 大夫以上の 벼슬자가 딸을 시집 보낼때 스스로 자기 車로써 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 駙馬가 친히 공주를 맞이할 때에도 擯禮가 없는데 하물며 일반 신부를 데려 오는데 신랑이 먼저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士昏禮註」에 신부에게 읍하는 것은 우리집에 다 왔으니 들어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중해서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sup>18)</sup>

### 7) 合巹禮

신부가 먼저 두번 신랑에게 절을 하면 신랑은 답례로 신부에게 한번 절을 하고 또 두번 신랑에게 절을 하는데 또 답례로 한번 절을 하고 어머니에게도 또한 挾排를 한다. 신부의 종자들은 모두 검은 옷에 비너를 꽂는다. 여기서 신부의 종자라는 것은 조카나 동생들을 말함이라.

18) 김장생 전계서, p. 45.

“신랑이 신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술을 마신다” 「사혼례」에 신랑이 신부에게 읊하면 신부는 일어나서 답배하고 각기 술잔을 들어 마신다.

“거기에는 안주가 없다” 「사혼례」에 두번째 입가심을 할 때 처음과 같이 하여 따르는 것이 없다. 세번째는 큰 술잔을 쓰는데 따르는 것이 없다.

“나누어서 신랑과 신부 앞에 놓는다” 「구의」에 종자가 두개의 술잔으로써 술을 따르지 아니하고 술을 한곳에 화합해서 권하면 신랑과 신부가 각기 한번씩을 받아가지고 마신다. 이것을 습쥬(합근)이라 한다.<sup>19)</sup>

합근이란 초례때 신랑 신부가 같은 잔의 술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며 몸을 합치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공로”같은 고기를 먹는 것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균등하게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몸을 합치면 지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같다는 의미이다.

### 8) 新房치르기

“復入”(다시 들어간다)한다. 「사혼례」에 신랑이 방에 들어가 신부의 머리끈을 풀어준다. 「註」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올리던 방에서부터 신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여자가 이 15세가 되면 시잡가는 것과 머리쪽지는 것을 허락해서 끈을 동여맨다.

“燭出”이란 「士昏禮註」에 혼례가 끝나면 장차 누울려고 하는 것인데 신랑이 옷을 벗으면 姆가 받는다. 「사혼례」에 신랑이 옷을 방에다 벗으면 따라간 사람 매과[女母]가 받는다. 수건과 세숫대야를 같이 쓰는 것은 역시 교접을 하는데 단계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다.

“머리를 맺어 부부가 된다” 「蘇子卿註」에 두사람의 恩儀를 의심할 수 없다.<sup>20)</sup>

요새 세상에 결혼식을 할 때에는 신랑 신부의 머리를 가져다가 합하여 잡아맨다. 옛적에는 이것이 없었다.

### 9) 見舅禮

「禮賓」에 賓에 從子다. 「士昏禮」에 신랑이 신부를 대접할 때에 부인을(舅姑 : 시부모)와 같이 대접을 한다. 신랑이 시부모를 대신하여 舅姑와 같이 신부를 대접하여 아울러 비단 껌백을 선물로 주는 등급이 또 있다.

시아버지가 보내는 사람을 대접할 때에는 술 한잔을 드리고 예로써 東錦(비단뚝음)을 선물로 준다. 「註」에 보내는 사람 신부 집의 有司(직책이 있는 사람)다. 잔이 나오면 그것으로 손님 대접을 하고, 또 그위에 東錦으로써 선물한다.

「聘禮」를 상고해 보니 손님을 대접해서 보내면 이것으로써 시부모가 신부집에서 온 사람을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다.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 뵈는다. 盛服을 하고 뵈기를 기다려야 한다. 신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비녀를 꽂고 소의(치마저고리)를 입고 시부모 뵈기를 기다린다. 시부모의 침실 문밖에서 대기하고 알현할 것을 기다린다. 이제는 혼례를 다 이룬 고로 한 등 낮추어서 소의를 입고 문안을 드린다. 「丘儀」에 시부모가 좌정하거든 신랑과 신부가 양쪽

19) 김장생 전계서, p. 49.

20) 김장생 전계서, p. 52.

층계사이에 서서 아울러 네번 절한다. 절이 끝나면 신랑이 먼저 물러나고 다음에 신부가 물러난다.

선물을 받친다. 부인의 선물은 폐, 가얏, 포육, 대추, 밤. (폐)는 인도에서 나는 과일맛이 달고 이름답다. 가얏이란 밤과 비슷한데 밤보다 아주 작다. 脯(포)라는 것은 脯肉과 같다. 脩는 포육인데 고기를 구워서 그 위에 생강, 계피를 발라 말린 것, 거기에 대추, 밤을 합하면 여섯가지 물건이 된다.

「士昏禮」에 신부가 대바구리에 대추, 밤을 담아서 문으로 부터 들어와서 예물을 바치면 시아버지는 앉아서 그것을 만져보고 일어나서 담배를 하면 신부는 자리로 돌아와서 시아버지께 절을 하고, 계단을 내려와서 바구리에 담은 포육과 과일을 받아가지고 올라가 절하고, 시어머니께 바치거든 시어머니는 앉아서 그것을 들어서 답례를 받는다.

만일 대추와 포육이 없으면 계절에 따른 과일. 修(하수)를 직접 만든 것이 없으면 말린 고기를 대신 사용해도 좋다.

중묘사당에서 예를 하는 것이다.

“신부가 여러 친지들을 찾아본다” 人家에서 신부를 맞아 오거든 친족들이 모두 모인다. 시부모에게 알현하는 예식까지 다 본다. 本族의 尊長을 찾아뵙고 그후 향렬이 낮은 사람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親族들을 찾아본다. 또 「雜記」를 상고해 보니 신부가 시보모를 알현할 때에는 형제나 자매들이나 모든 常下에 내려가서 서쪽을 향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相見禮다. 신부가 들어가면 벌써 그 악을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본 것이다. 특별히 따로 절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 각기 그 사람의 처소에 나아가서 찾아 뵈어도 괜찮다.

「朱子家禮本註」에도 또한 세속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적혀 있다. 직계가 아닌 방계라도 어른들은 응당히 신부에게 절을 받을 사람들이라 신부가 네번 절을 하면 방계어른들은 비록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일렬로 서서 절을 받아서 간편한 것을 따른다. 그러나 신부가 문간에 처음 들어와 반드시 어느 사람이 年上인지 알 수가 없으니 시어머니가 한사람 한사람 소개하는 것을 기다려 한다. 혹 시어머니가 없으면 즉 친족 중 어른이 일일이 소개해서 신부와 상견례를 하게 한다.

婦는 말며느리다. 폐백을 내는 것이고 지차 며느리들은 딴 사람을 시켜 술을 따르게 하고 직접 자기가 대접하지 않는다. 庶婦란 여러 자식의 며느리다. 술을 따라 주고 받고 하지 않는 것을 醴(초)라 한다. 큰며느리가 감주를 따르는 것은 말며느리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 밖의 여러 며느리를 술을 따르게 하는 것은 등급을 낮추어 낮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適子の 계통을 봉양한다는 뜻이다.<sup>21)</sup> 작은 며느리로 하여금 큰 며느리에게 술잔을 바치게 한다. 이것으로만 구별해 주면 괜찮다.

「朱子大全」에 예법을 상고해 보니 신부가 시보모에게 세숫대야를 갖다 바치고 진지상을 갖다 드리는 것인데 만약 시아버지가 돌아갔다하면 그때에는 작은 시아버지가 살아 있을테니 작은 시아버지로 하여금 세숫대야나 진지상을 받게 함이 옳겠는가?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시어머니와 더불어 예를 받으면 무방하다.

시어머니 악에 진지를 올린다. 시부모 악에 나아가서 탁자 위에 놓는다. 시어머니께 받들고 이것을 들게 한다. 여기에 비로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시부모가 식사를 다 끝내거든 신

21) 김장생 전계서, p. 59.

부가 그 나머지를 먹는 것은 사사로이 함이라 특별히 은총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말함이나 같다.

“사부모가 식사를 사람들에게 대접한다” 술과 식사로써 하인들을 위로하는 것을 饗(향)이라 한다. 「經」에 俎(조-그릇, 도마)를 신부의 사람에게 돌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제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데 산 제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함이라. 有司로 하여금 돌아가서 신부가 받았던 그릇으로써 신부의 부모에게 反命을 한다. 禮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 10) 廟 見

“신부를 데리고 사당에 가서 알현한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층계 사이에 서로 같이 하고 자기 섰던 자리로 되돌아와서 조상의 신령에게 하직을 하면 다른 여러 사람이 따라서 절을 하는데 즉 사당에 告辭(축문)를 올려 가로되 아무개가 지금 혼례를 끝내서 감히 신부 아무개로써 目拜하는 것으로써 찾아뵙게 하는데 예가 끝나면 신부가 잔에 차를 따르고 자기 자리에 와서 또 目拜를 하고 신랑, 신부가 또한 생시에 부모를 뵈 때는 자리를 달리하고 방향도 달리했는데 살아 있을 때는 제사 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상징함이라.

#### 11) 再 行

“壻見婦之父母”(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찾아 뵈는다)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 뵈 때는 손님에 대한 예와 같이 한다.<sup>22)</sup> 혼인날에 사위가 혼례 복식을 차려입고 신부집에 가서 대문밖에 이르러서 서 있으면 신랑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신랑이 왔으니 마중을 해달라고 청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대문밖까지 나가서 신랑을 마중하고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앞서 들어가면 사위가 뒤를 따라 들어가면 신랑을 따라온 종자들이 가지고 온 폐백을 손에 잡고 신랑을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동쪽 층계로 당위에 올라서고, 사위는 서쪽 층계로 올라가서 당위에 올라가면 신부의 아버지가 약간 북쪽으로 향하고, 사위는 북쪽에 서서 약간 남쪽으로 향하고 신랑이 四拜를 한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을 붙들어 일으켜준다. 從子들이 가지고 온 폐백을 신랑에게 바치면 신랑은 그것을 받아 신부 아버지께 바친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받아서 從子들에게 내어 준다.

“見婦母”(主婦를 찾아 뵈는다)

주부(장모)는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있고, 사위는 문밖에 서 있고, 동쪽을 향한다. 장모가 한번 절을 하고 신랑은 두번 절을 하고, 장모가 신랑에게 대해서는 형제별이 되는 것을 알아라.

兄弟와 서로 相見할 때도 문턱을 넘지 않는다. 즉 문밖에 나가지 않는다. 「丘儀」에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를 인도하여 사당앞에 이르러서 신부의 아버지가 두번 절하고 향을 피우고 쏘하여 가로되 아무개 딸 아무개의 사위가 찾아와서 엎드려 뵈고, 향을 피우고 사위는 양쪽 층계 사이에 서서 目蓋하고 끝나면 신부의 아버지가 再拜하고 예식이 끝나면 예법에 의거하여 신랑이 신부편의 여러 친척들을 찾아 뵈는다.

신랑이 신부집에 간 뒤에 신부집이 만일 부자집이거든 마땅히 門中연회를 연다는 一節이

22) 김장생 전계서, p. 64.

있을 것이오.

집안에 상사가 있었으면 그 집에서는 음악을 쓰지 않는다. 또 축하연도 하지 않는다. 酒食을 마련해 가지고 같은 동네 친구들을 부르는 것인즉 이것은 옛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잔치하는데 비용을 보낼 뿐이고 그 집에 경사를 꼭 축하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분담하는 뜻으로 음식을 마련해간다. 退溪가 말하길 “밤에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 같은 고로, 낮에 禮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다.

### Ⅲ. 結 論

- 1) 「婚禮」에 昏字를 쓰는 이유는 황혼의 저녁때 혼례를 이룸을 뜻하며 昏姻이란 신랑과 신부를 뜻하므로 혼인이란 夫隸의 명칭을 상징한다.
- 2) 혼례시 喪을 당하면 혼인 예식을 못하고 연기했으며 상복을 입었던 것은 부모에 대한 孝心の 상징이다.
- 3) 議婚의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을 정했던 것은 신랑 신부의 성인이 됨과 양가의 관계를 원만히 하려는 예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 4) 納采에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폐백을 보내는 것은 신부를 양육해 준 고마운 뜻을 전하는 것으로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 5) 納幣에 비단과 가죽과 금비녀(釵), 금팔찌(釧)등의 보패를 쓰며 비단을 5필 5푼치 쓰는 것은 匹偶를(부부) 의미한다. 또한 검은천(靑), 붉은천(紅), 쓰는 것은 신랑(靑 : 양)과 신부(紅 : 음) 二姓之合百福之源의 상징성을 의미한다.
- 6) 請期에는 혼인이 인륜지대사로 양가의 의사를 합의하는 뜻으로 혼인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 7) 問名에도 혼례에 신랑 신부 신상문제,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바르게 파악하여 인륜대사로 혼인의 중요성을 표현한다.
- 8) 親迎의 의식을 복잡하게 거행하는 이유는 夫唱婦隨의 취지와 신랑신부의 백년해로의 약속을 다지고 양가의 교역의 정을 돈독히 하며, 祠堂 표현을 통하여 조상숭배사상을 기리고 아울러 孝의 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父命之와 母送은 천륜으로 이어진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상징하고 있다.
- 9) 奠雁禮에서 기러기를 주는 것은 음양을 따라 서로 왕래한다는 것과 부인이 남편을 따르며 부부사랑의 약속을 상징한다.
- 10) 合巹禮에서 신랑 신부가 술잔을 합쳐서 들고 共牢를 먹는 것은 몸을 합치며 지위가 동급이 된다는 의미이다.
- 11) 見舅禮에서 시부모님께 폐백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에 최대한으로 보답하는 孝의 정신을 표현하며 이때 신랑 신부가 盛服하는 것은 일생에 한번 최대한으로 호의하는 것이다. 이때의 폐백음식에 포육, 밤, 대추, 가얏 등의 열매를 쓰는 것은 자손창성의 의미를 갖고 자손의 계승과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또한 친족과의 상견례는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함이었고 수신제가의 표현이었다.
- 12) 祠堂 廟見은 부모님에 대한 孝와 조상숭배의 의미이다.

- 13) 再行의 뜻은 장인 장모 역시 신랑 신부의 양부모임을 뜻하며 시부모와 함께 효를 다하는 정신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의 혼례풍속에는 혼례의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의 진행이 거창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그속에 천륜의 소중함을 다지고 이러한 정신은 孝思想의 끝없는 사랑, 조상숭배와 二姓之습의 근본이 되었고 이러한 혼례문화는 나아가서 전통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인생관, 가정관, 사회관, 국가관의 뿌리가 되었던 전통예절 문화중의 하나였던 전통혼례문화의 전수발전은 세계화를 한층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金長生 家禮輯覽
2. 朴桂壽, 居家雜服攷
3. 朱子家禮
4. 家禮諺解
5. 禮記
6. 國朝五禮義
7. 大東要覽
8.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9. 李晔光 芝峰類說
10. 李肯翊 燃藜室記述
11. 李能懋 靑裝館全書
12. 李 漢 星湖僊說
13. 一 然 三國遺事
14. 崔南善 朝善常識
15. 家庭儀禮 大百科
16. 石宙善 韓國服飾史
17.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18. 金靜子 韓國結婚風俗史
19. 金用叔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20.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21. 孫敬子 李朝服飾考
22.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研究
23. 金鍾鳴 韓國의 婚俗研究
24. 김장생, 전계서, p. 2
25. 김장생, 전계서, p. 2